

‘신박듀오’ 특별한 클래식 여정

전주 문화공간 이룸, 6일 ‘비르투오조 시리즈’ 네 번째 무대 개최

오는 6일 오후 5시, 전주 문화공간 이룸 (이사장 이운정)에서 ‘2025 비르투오조 시리즈’의 네 번째 무대가 열린다.

이번 공연은 국내 대표 피아노 듀오인 신박듀오(신미정·박상욱)가 선보이는 〈From Folk to Classic: A Journey for Four Hands〉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주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너머의 예술-이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기초지자체 공연장으로는 드물게 중앙 공모에 선정된 이번 공연은, 지역 문화공간의 예술적 기획력과 의미를 국제적 수준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신박듀오는 독일 ARD 뮌헨 국제콩쿠르 2위, 모나코 국제 피아노 듀오 콩쿠르 우승, 체코 슈베르트 국제 콩쿠르 만장일치 우승 등 세계 유수의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쌓아온 피아니스트 신미정과 박상욱으로 구성됐다.

빈 무지크페라인,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등 유럽 주요 홀에서 리사이틀과 협연을 통해 연주력을 입증하며, 오스트리아 빈을 거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신박듀오의 세 번째 문화공간 이룸 무대로, 앞선 두 차례 공연에서 관객의 뜨거운 앙코르 요청을 받았던 만큼, 피아노 네 손이 만들어내는 정밀함과 감성, 깊은 음악적 해석을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시



‘신박듀오’ 비르투오조 시리즈 포스터

간이 될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민속(Folk)’과 ‘고전(Classic)’이라는 상반되면서도 유기적인 흐름으로 구성된다.

공연은 먼저 동유럽 특유의 생동감 넘치는 리듬을 담은 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1·7·8번으로 시작된다. 이어 20세기 초 미국

살롱 문화의 정수를 담은 바버 〈Souvenirs〉가 6개의 짧은 무브먼트로 연주되어 왈츠, 탱고, 갈롭 등 다양한 춤곡의 매력을 피아노 네 손으로 재치 있게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체르니 편곡의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이 연주되어, 피아노로 구현된 교향곡의 짜임새와 강렬한 에너지를 통해 클래식의 정수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다.

문화공간 이룸과 신박 듀오가 공동 기획한 이번 공연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전통과 형식, 감성의 흐름을 따라가는 하나의 음악적 여정으로 완성된다.

이운정 이룸 이사장은 “신박듀오와의 세 번째 인연은 이룸이 추구하는 예술성과 지속 가능한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이번 무대는 공연장이 단순히 연주를 올리는 장소를 넘어, 예술가와 함께 호흡하며 지역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예술 창작의 거점’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지역 관객에게 클래식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피아노 듀오가 만들어내는 섬세한 감성을 깊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공연 예매는 네이버에서 ‘비르투오조 시리즈’를 검색하거나 전화(063-223-5323)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공연예술지원 선정작 연이어 무대 오른다

전주문화재단, 덕혜옹주 삶 조명 창작 연극·춘향전 월매 주인공 소리 인형극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의 ‘2025 공연예술지원’ 선정작이 잇따라 무대에 오른다. 이에 따르면 먼저 창작초연 부문에 선정된 ‘예술집단 고하’는 창작 연극 〈오얏꽃이 피었다〉를 무대에 올린다.

오는 11일과 12일 오후 7시 30분,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리며, 예매는 NOL티켓을 통해 가능하다.

이 작품은 덕혜옹주의 삶을 중심으로 인간으로서 겪어야 했던 고뇌와 슬픔,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를 섬세하게 그려낸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내려 했던 인물의 내면을 조명해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 예정이다.

‘예술집단 고하’ 김경민 대표는 “오랫동안 준비한 작품이 전주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관객과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덕혜옹주의 삶을 함께 따라가며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 레퍼토리 부문에 선정된 ‘조민지 아트컴퍼니’의 소리 인형극 〈여사 장모 월매〉가 오는 20일 관객과 만난다. 이 작품은 동초재 춘향가 사설을 바탕으로 기존의 조연이던 ‘월매’를 중심 인물로 재조명한다. 자녀를 향한 월매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인형극의 독창적 형식으로 풀어내며, 부모의 사랑이라는 보편적 정서를 전한다.

‘조민지 아트컴퍼니’ 조민지 대표는 “인형극의 순수하면서도 발작한 매력을 판소리와 접목해 관객이 판소리의 맛과 멋을 함께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판소리의 매력을 새롭게 무대에 올리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개최되며 예매는 나무꾼에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문화로 대동’ 5~6일 개최… 박창근 특별공연

정읍시가 오는 5일과 6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정읍 천변 어린이 축구장에서 ‘2025 정읍 문화로 대동’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동학의 대동정신을 현대적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역사적 자산을 문화예술로 풀어내 정읍의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특히 첫날인 5일에는 정읍 홍보대사이자 ‘내

일은 국민가수’ 우승자인 가수 박창근이 특별 무료공연을 펼친다. 2시간 동안 시민들과 소통하며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며, 지역 가수의 무대도 이어져 다채로움을 더한다.

둘째 날인 6일에는 정읍시립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청년 예술인 6팀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초대가수 요요미가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이어가며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군, 금강 상류지방 최대 규모 마한 취락지 발굴

계남면 화양리 일원서 주거지 63기·지상건물지 10기 등 확인

장수군은 지난 2일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공사 구간 사전 조사에서 금강 상류지방 최대 규모의 마한 취락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수군이 재단법인 전라문화유산연구원(조사단장 김미란)과 계약을 체결해 계남면 화양리 10·1번지 일원 ‘장수 침곡리 유물산포지 G’에서 시굴 9,814㎡와 발굴 5,780㎡ 규모로 매장유산을 조사한 결과다.

발굴 결과, 원삼국시대 마한 취락으로 추정되는 주거지 63기, 지상건물지 10기, 구상유구 8기, 수혈 3기가 드러났으며, 장수 지역에서 확인된 마한 취락 가운데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이 유적은 현재 지형 변형이 심하지만, 취락이 운영되던 당시에는 현장에서 확인된 범위보다 훨씬 넓은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는 (말각)방형계 평면이 주류를 이루고 일부 타원형도 확인되었으며, 내부에서는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10·1번지 일원에서 금강 상류지방 최대 규모의 마한 취락지가 확인되었다. 사진은 4구역 주거지.

점토식 부뚜막·주공·벽구·장타원형 수혈 등이 드러났고 장란형 토기, 심발, 시루, 호,

완, 주구토기와 더불어 소량의 철기류, 방추차, 곡옥거푸집 등이 출토됐다.

특히 집선문·승석문이 새겨진 회색 경질토기도 다수 발견돼 취락의 형성·운영 시기를 4~5세기로 추정하게 한다.

이 유적은 마한계 주거 구조의 특징을 분명히 보여주며, 전북 동부지역 마한계 주거지 연구와 장수 지역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유적이 자리한 마무산 남동사면은 유천과 장계천이 합류해 금강으로 이어지는 수계의 핵심 위치로, 고대 교통·생산 거점지로서의 위상도 드러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발굴은 장수군이 고대 사회의 중추적인 지역이었음을 다시 확인시켜준 성과”라며 “역사문화권 특별법 5관왕의 위상에 걸맞게 장수군의 정체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나를 위한 씬’ 국악명상 수강생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2025 나를 위한 씬, 국악명상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선 왕들의 삶과 지혜를 모티브로 삼아, 오방색·향·품지 등 전통 요소와 국악 선율, 다양한 명상 기법을 결합하여 현대인에게 치유와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국악 명상은 총 4회로 진행, △9월 19일 19시 ‘세종의 품지’에서는 달항아리를 주제로 무아(無我)에 이르는 명상 △9월 20일 7시 ‘정조의 향기’에서는 활인심판 호흡법과 움직임을 통한 명상 △9월 26일 19시 ‘태조의 소리’에서는 강강술래를 새롭게 해석한 명상 △9월 27일 7시 ‘영조의 색’에서는 오방색을 활용한 감정 명상이 진행, 각 회차는 청성곡(淸聲曲), 천년만세(千年萬歲) 등 전통 국악 연주가 함께하여 명상의 깊이를 더한다.

국악 명상은 국립민속국악원 내 로비와 흥부



마루에서 진행되며, 각 회차 정원은 20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이고, 신청은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